

#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범철호\*

<sup>1</sup>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Enjoyment Factors,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Golf Participants

Chul-Ho Bu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Golf Industry, Kyung He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322부의 설문지가 연구 자료로 이용되었으며,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들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지 흥미만이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쾌락적 웰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golf participants' enjoyment factors,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ree hundred twenty-two surveys were used as the final data, and the results using SPSS 18.0 and AMOS 18.0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enjoyment factors of golf participants all effected positively on leisure satisfaction. Second, only interest display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lf-realization. Third, leisure satisfaction increased self-realization, but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hedonic well-being in this study.

**Keywords** : Enjoyment Factors, Golf Participants,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는 여가 활동의 증대와 관심을 꾸준히 불러일으키고 있다[1]. 특히 골프는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참여자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3]. 이러한 골프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에 골프연습장은 4,000여 개를 넘어서며, 국내 골프 산업의 번창을 이끌고 있다[4]. 그렇지만, 골프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운동에 대한 재미를 잃어

버리며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이들이 있다.

스포츠 참여에서 재미 요인은 운동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데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5]. 일반적으로 '운동 재미'는 스포츠 참여로부터 오는 즐거움, 좋아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6]. 재미는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그리고 재미는 성별, 나이, 종목 및 사회적 배경을 불문하고 운동지속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긍정적인 감정과 만족감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난다[8].

\*Corresponding Author : Chul-Ho Bum (Kyung Hee University)

Tel: +82-31-201-2799 email: [umn1186@hanmail.net](mailto:umn1186@hanmail.net)

Received August 17, 2015

Revised (1st September 30, 2015, 2nd October 26,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여가 만족’은 여가 활동 후 인지하고 느끼는 감정이 나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9]. Ragheb와 Griffith[10]는 여가 활동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인간관계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어 만족감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심리적 웰빙’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의미한다[11-12]. Ryan과 Deci[13]는 심리적 웰빙에 대하여 크게 쾌락주의적 웰빙(hedonic)과 자기실현적(eudaimonic) 웰빙으로 구분하였다. 쾌락적 웰빙은 삶에 대한 행복감의 지표로 이용되며, 자기실현적 웰빙은 자아를 찾고 실현에 대한 성취감이다. 이러한 심리적 웰빙은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 얻어진다[14].

근래에 많은 사람 사이에서 심리적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 지금까지 체육 분야에서 선행변수에 따라 스포츠 참여자의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16-18] 등이 있으나, 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동의 재미 요인이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적 차원의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 참여자들이 재미를 통해 운동을 지속해나감에 따라 여가 만족감을 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가설

### 1.2.1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의 관계

많은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준과 김도진[19]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양체육수업 참여에 대한 재미는 여가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운동 참여에 대한 재미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2 재미 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피트니스클럽회원의 운동참여에 대한 재미 요인에서 흥미, 사교, 인정은 심리적 웰빙을 높였다[21]. 또한 강현욱[22]의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스포츠 참여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3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

레크리에이션 댄스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3], 생활체육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설 3: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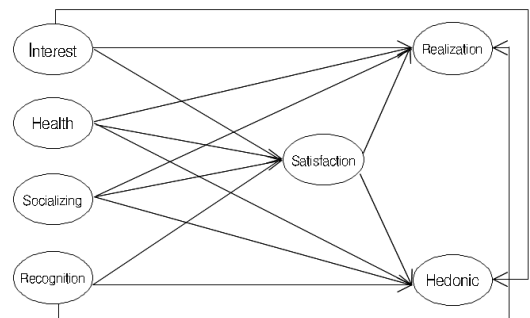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골프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2015년 현재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

을 이용하였다. 수거된 348부의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이 일부 빠진 26부를 제외한 총 322부의 설문지가 전체 자료처리에 포함되었다.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tegory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97	61.2
	Female	125	38.8
Age	20s	40	12.4
	30s	75	23.3
	40s	111	34.5
	over 50s	96	29.8
Golf experience	under 2 years	45	14.0
	under 5 years	97	30.1
	under 8 years	95	29.5
	over 8 years	85	26.4
All		322	100

### 2.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주성분 요인추출법, 직교회전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뢰도(reliability)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여 문항에 대한 응답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였다.

Table 2. Validity & reliability of enjoyment factors

	1	2	3	4	$\alpha$
socializing 3	.878	.112	.081	.049	.901
socializing 4	.871	.139	-.041	-.017	
socializing 2	.866	.179	.086	.007	
socializing 1	.850	.098	.107	.061	
Recognition 4	.111	.869	.034	-.029	.872
Recognition 2	.129	.846	.043	.084	
Recognition 1	.093	.838	.013	-.026	
Recognition 3	.174	.803	.036	-.052	
Health 2	.040	.026	.817	.285	.810
Health 3	.053	.097	.779	.097	
Health 1	.080	.050	.775	.079	
Health 4	.042	-.057	.734	.225	
Interest 3	.084	.063	.075	.830	.754
Interest 1	.037	-.056	.186	.764	
Interest 2	.040	-.119	.153	.721	
Interest 4	-.065	.085	.195	.641	
Eigen-value	3.097	2.936	2.546	2.369	
Variance(%)	19.356	18.349	15.914	14.808	
Cumulative(%)	19.356	37.704	53.619	68.427	

KMO=.813,  $\chi^2=2383.651$ ,  $df=120$ ,  $sig=.000$

스포츠의 재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준과 성장훈[25]이 측정도구(SESQ)를 개발하고, 김병준[26]과 임우택, 김영재[27] 등이 선행 연구에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흥미, 건강, 사고 및 인정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다.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고유 값(eigen value)은 1.0 이상, 요인 적재량은 0.50 이상을 요인과 문항의 선택기준으로 정하였다. 신뢰도 분석에서는 Cronbach's  $\alpha$ 가 .754-.901로 나타나 요인별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골프 참여자의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eard와 Ragheb[9]이 개발하고 임범규, 조광민, 석부길[28]이 국내에서 빈안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여가 만족에 대한 단일 요인으로 4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구성되었다.

골프 참여자의 운동을 통한 심리적 웰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양명환[29]이 개발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적 웰빙의 하위 요인은 자아실현(5문항)과 쾌락적 웰빙(5문항)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형 척도를 이용하였다.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0.50 이상의 요인 적재치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도 계수는 .842-.871로 요인별에 대한 신뢰도가 입증되었다.

Table 3. Validity & reliability of leisure satisfaction & psychological well-being

	1	2	3	$\alpha$
Self-realization 4	.845	.205	.148	.850
Self-realization 5	.791	.222	.182	
Self-realization 1	.774	.183	.234	
Self-realization 3	.701	.120	.062	
Self-realization 2	.694	.254	.158	.842
Hedonic 4	.118	.820	-.026	
Hedonic 5	.116	.788	.073	
Hedonic 3	.200	.784	.000	
Hedonic 1	.272	.720	.078	.871
Hedonic 2	.214	.684	.030	
Satisfaction 3	.108	.055	.869	
Satisfaction 2	.246	.092	.843	
Satisfaction 1	.197	.092	.832	.871
Satisfaction 4	.095	-.082	.781	
Eigen-value	3.219	3.213	2.919	
Variance(%)	22.993	22.305	20.852	
Cumulative(%)	22.993	45.298	66.150	

KMO=.866,  $\chi^2=2248.206$ ,  $df=91$ ,  $sig=.000$

### 2.3 자료처리

본 연구는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변수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1	2	3	4	5	6	7
Interest	1						
Health	.402**	1					
Socializing	.075	.144**	1				
Recognition	-.002	.083	.295**	1			
Satisfaction	.421**	.606**	.255**	.208**	1		
Self-realization	.272**	.320**	.223**	.160**	.379**	1	
Hedonic	.107	.201**	.158**	.060	.129*	.465**	1

\*p<.05, \*\*p<.01

### 3.2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The results of CFA

	Estimate	S.E.	C.R.	CCR.	AVE
Interest1	1				
Interest2	.753	.083	9.114	.807	.517
Interest3	1.129	.112	10.089		
Interest4	1.002	.085	7.806		
Health1	1				
Health2	1.355	.121	11.221	.837	.566
Health3	1.002	.102	9.858		
Health4	.938	.092	10.224		
Socializing1	1				
Socializing2	.984	.058	17.076	.923	.751
Socializing3	.940	.057	16.606		
Socializing4	.996	.058	17.082		

Recognition1	1				
Recognition2	.998	.069	14.465	.940	.797
Recognition3	.992	.073	13.634		
Recognition4	1.099	.072	15.217		
Satisfaction1	1				
Satisfaction2	1.004	.060	16.785	.886	.663
Satisfaction3	1.014	.063	16.119		
Satisfaction4	.758	.061	12.519		
Self-realization1	1				
Self-realization2	.929	.083	11.193	.880	.601
Self-realization3	.947	.095	9.988		
Self-realization4	1.055	.069	15.381		
Self-realization5	1.007	.068	14.915		
Hedonic1	1				
Hedonic2	.757	.075	10.152	.880	.596
Hedonic3	1.087	.088	12.346		
Hedonic4	.991	.081	12.205		
Hedonic5	.932	.081	11.473		

각 요인의 적재치가 0.50 이상을 웃도는 것에 따라서 개념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CCR은 0.70 이상을 보여 주고 있고 AVE는 0.50 이상으로 개념 신뢰도와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696.44$ ,  $df=380$ ,  $p=.000$ ,  $\chi^2/df=1.833$ ,  $NFI=.868$ ,  $RMR=.044$ ,  $CFI=.935$ ,  $RMSEA=.051$ 의 수치로 나타났다.

### 3.3 구조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chi^2=571.182$ ,  $df=373$ ,  $p=.000$ ,  $\chi^2/df=1.533$ ,  $NFI=.892$ ,  $RMR=.033$ ,  $CFI=.959$ ,  $RMSEA=.041$ 의 수치로 확인되었다. NFI의 값은 0.9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RMR, CFI, 그리고 RMSEA는 기준값을 충족시키고 있음에 따라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대체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에서 흥미, 건강, 사교, 그리고 인정은 여가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골프 참여자의 흥미는 자아실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하위요인들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 참여자의 건강과 사교는 쾌락적 웰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하위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은 심리적 웰빙의 자아실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는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Table 6.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Hypothesis		Esti.	S.E.	C.R.	p
H1	Interest → Satisfaction	.217	.087	2.487	*
	Health → Satisfaction	.958	.136	7.048	***
	Socializing → Satisfaction	.138	.053	2.629	**
	Recognition → Satisfaction	.171	.072	2.391	*
H2	Interest → Self-realization	.201	.083	2.427	*
	Interest → Hedonic	-.014	.108	-.133	.894
	Health → Self-realization	.075	.129	.580	.562
	Health → Hedonic	.469	.182	2.571	**
	Socializing → Self-realization	.076	.050	1.519	.129
	Socializing → Hedonic	.150	.069	2.183	*
	Recognition → Self-realization	.107	.068	1.560	.119
	Recognition → Hedonic	-.031	.093	-.330	.741
H3	Satisfaction → Self-realization	.198	.081	2.438	*
	Satisfaction → Hedonic	-.079	.110	-.724	.46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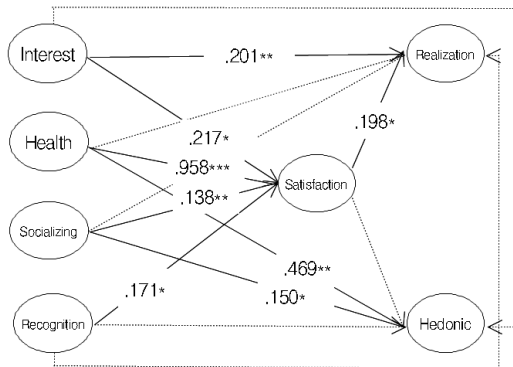


Fig. 2. Path coefficient on research model

#### 4. 논 의

앞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흥미, 건강, 사교 및 인정 모두는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대학교 교양체육수업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재미는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9]. 또한, 배드민턴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운동에 대한 재미 요인은 여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20].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canlan과 Simons[6]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참여에 대한 재미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재미 요인은 운동을 지속시키는 원동력 중의 하나로 알려졌다[7]. 이것은 만족감으로 귀결된다고 나타났다[8]. 따라서 골프 참여자들은 골프에 대한 흥미나, 건강 증진, 다른 사람과의 교류 및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등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 여가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골프에서도 재미 요인은 여가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변수임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심리적 웰빙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흥미는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강과 사교는 쾌락적 웰빙을 높이는 선행변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하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트니스클럽회원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에 대한 재미 요인에서 흥미, 사교, 그리고 인정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김민정[21]의 연구와 운동 참여의 재미 요인은 삶에서 심리적 웰빙과 정적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22]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Andrews와 Robinson[11]은 심리적 웰빙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써 행복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Plante와 Rodin[14]은 운동은 신체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안정 요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아실현을 통하여 삶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골프 참여자들이 운동에 대한 흥미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고 자기 계발과 성취감을 통해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Weiss와 Petlickhoff[30]는 스포츠 참여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인맥관리를 도와주며, 이러한 요인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골프를 통해 건강 증진과 동호인들과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이것은 스트레스 해소나 정서적인 안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삶의 질과 쾌락적 웰빙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골프의 참여를 부추기는 재미요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여가 만족과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에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가에 대한 만족은 심리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 [23-24]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대인들의 여가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며, 삶의 행복감을 증가시킨다는 견해를 주장한 연구가 있다[22]. 특히, Campbell, Converse, 그리고 Rodgers[31]는 여가 만족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의 정서상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자기 계발을 가능하게 만들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10]. 이와 같은 골프 참여로부터 파생된 유익한 점은 참여자들의 만족을 유발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증가시키며 나아가 자아실현을 높인다는 의미로 수용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골프 참여자를 대상으로 재미 요인, 여가 만족, 그리고 심리적 웰빙과의 관계를 구조적 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미 요인의 하위 요인인 골프 참여자의 흥미, 건강, 사고 및 인정은 모두 여가에 대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미 요인의 흥미는 자아실현과 정적관계로 나타났다으나 다른 하위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건강과 사고는 쾌락적 웰빙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여가 만족은 자아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쾌락적 웰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골프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나,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참여자와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후속연구

에서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골프 참여자의 재미 요인과 여가 만족 및 심리적 웰빙 간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운동 참여를 통해 여가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나아가 삶에서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선의 지도자들은 스포츠 참여자들의 재미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S. H. Kim, "Effect of golf range environment for customer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Department of Sports & Leisures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4.
- [2] N. Y. Hur, S. K. Kim, "The affection on the status insecurity on the middle-high school golf player's ability of games", *Sports Science Studies*, Vol.13, No.1, pp.25-34, 2003.
- [3] Korea Golf Association, "Korean golf index", 2013.
- [4] C. B. Seo, "Leisure industry yearbook", Korea Leisure Industry Laboratory, 2007.
- [5] T. H. Kim, "An analysis on the enjoyment factor of sports based on bowling club member's recogniti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07.
- [6] T. K. Scanlan, J. P. Simons, The construct of sport enjoyment. In G. C. Roberts (Ed.),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pp.199-215, Champaign, IL: Human Kinetics, 1992.
- [7] D. L. Gill, J. B. Gross, S. Huddleston,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14, pp.1-14, 1983.
- [8] B. S. Seo, "Effects of enjoyment factor on exercise commitment and exercise adherence in skinsuba participant's.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14.
- [9] J. G. Beard, M. G. Ragheb,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2, No.1, pp.20-33, 1980.
- [10] M. G. Ragheb, C. A. Griffith,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18, pp.248-258, 1982.
- [11] F. M. Andrews, J. P. Robinson,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pp.61-114, San Diego, Academic Press, 1991.  
DOI: <http://dx.doi.org/10.1016/b978-0-12-590241-0.50007-1>
- [12] W. E. Fordyce, "Pain and suffering: A reappraisal", *American Psychologist*, Vol.43, pp.276-283,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43.4.276>
- [13] R. M. Ryan, E. L. Deci, "On happiness and human

-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2, pp.141-166, 2001.  
DOI: <http://dx.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14] T. G. Plante, J. Rodin, “Physical fitness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Current Psychology: Research and Reviews*, Vol.9, pp.1-22, 1990.  
DOI: <http://dx.doi.org/10.1007/BF02686764>
- [15] A.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1981.
- [16] J. S. Lim, C. W. Lee, “The relationship among class satisfaction in activity cla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ontinuance of physical activities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50, No.5, pp.275-283, 2011.
- [17] S. H. Choi, B. J. Kim,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concern, well-being-oriente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college students attended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2, No.5, pp.211-220, 2013.
- [18] M. H. Yang, D. J. Kim, J. S. Kim, “The effect of sport club and general physical education participation on th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mponents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19, No.4, pp.87-104, 2008.
- [19] D. J. Lee, D. J.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enjoyment source of general sports class and leisure satisfaction in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Vol.15, No.2, pp.39-50, 2005.
- [20] K. I. An, D. K. Seo, “The effects of fun factors in badminton club members on leisure satisfaction, exercise adherence and intention to dropou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3, No.3, pp.349-364, 2014.
- [21] M. J. Kim, “Effects of exercise enjoyment factors and exercise flow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fitness club members”,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014.
- [22] H. W. Kang, “The mediation effect of enjoyment factor in body im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en in dance sport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1, No.4, pp.165-175, 2012.
- [23] H. S. Lee, M. M. Kim, “Leisure activity experience of participants of recreational dance and the effect of leisure satisfac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23, pp.1-16, 2011.
- [24] T. Y. Moon, C. U. Heo, “Impact of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on leisur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2, No.9, pp.3984-3993,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9.3984>
- [25] B. J. Kim, C. H. Sung, “Concepts and current research=enjoyment in Sport”,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3, No.2, pp.99-122, 1996.
- [26] B. J. Kim, “Sources of enjoyment and stress in sports among Korean young athlete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10, No.2, pp.193-209, 1999.
- [27] W. T. Lim, Y. J. Kim, “Relationship between enjoyment of university students' sports circle member and activity attitud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5, No.3, pp.265-272, 2006.
- [28] B. G. Im, K. M. Cho, B. G. Seok, “A path modeling approach on relationships among leisure flow,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the amateur baseball leagu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0, No.2, pp.127-144, 2011.
- [29] M. H. Yang, “Development of cognitive affective states scale=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9, No.2, pp.113-123, 1998.
- [30] M. R. Weiss, L. M. Petlichoff, “Children's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in and withdraw from sport: Identifying the missing link”, *Pediatric Exercise Science*, Vol.1, No.3, pp.195-211, 1989.
- [31] A. Campbell, P. E. Converse, and W. L. Rodgers,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1976.

**범 철 호(Chul-Ho Bum)**

**[정회원]**



- 2007년 12월 : 뉴멕시코대학교 체육대학원(체육학석사)
- 2013년 5월 : 뉴멕시코대학교 체육대학원(체육학박사)
- 2013년 8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코칭행동, 리더십, 스포츠 심리